

스코틀랜드, 세계 최초 생리용품 '무상공급' 추진

스코틀랜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리용품 무상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들 전 공공장소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1차 투표에서 찬성 112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법안은 의원들이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소관 위원회로 넘겨졌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의회는 2차 투표를 진행해 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여성들은 지역 센터, 청소년 클럽, 약국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받게 된다.

2017년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노동당 모니카 레넌 의원은 "스코틀랜드에서 생리를 정상적인 일로 만들고 우리 의회가 성평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국민



에게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우리가 하는 일을 매우 주시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사진)

앞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018년 9월부터 520만 파운드(약 670만 달러)를 투입해 학교와 대학 등에서 생리용품 무상 배포를 시작했다. 이 역시 세계 최초였다.

스코틀랜드 여성단체 '독립을 위한 여성'이 2018년 1,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1명은 천이나 낡은 옷, 신문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용품 무상공급에는 매년 2,410만파운드(약 3100만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생리용품 부가세를 폐지한다.

이스라엘 총리 "유대인 정착촌 확대할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무 매체 '베르세바' 주최 회의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과 예루살렘 외곽을 건설하고 있다."며 "나는 'E1' 지역에 주택 3천500채를 건설하라는 계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유대인 대규모 정착촌 말레 아두민 사이에 있고 요르단강 서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전략 지역으로 꼽힌다.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E1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추진했지만 팔레스타인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반발로 보류됐었다. E1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강제로 점령한 지역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일 동예루살렘에 정착촌 주택 5천여 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마약 거물 줄줄이 미국서 수감

멕시코 대형 마약조직 '로스세타스'의 창립 멤버인 하이메 곤살레스 두란이 미국으로 인도된다.

지난 2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두란은 멕시코에서 수감 중으로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여왔으나 멕시코 연방법원이 결국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

최근 들어 멕시코 카르텔 '거물'의 미국 인도가 잇따르는 추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미국으로 넘겨진 멕시코 범죄자들이 최소 30명에 달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35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8명이 인도됐는데 올해는 두 달도 채 안 돼 지난해의 절반 이상이 인도된 것이다. 2018년엔 69명, 2017년엔 57명이 미국에 인도됐다.

마약 카르텔의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멕시코에선 지난해 살인 건수가 3만4,500건 이상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 북부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미국·멕시코 이중국적자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해 여성 3명과 아이 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의 압박도 커졌다.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미국 정부가 멕시코 마약조직에 고삐를 죄려 하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은 미국 내에 마약을 유통하는 멕시코 카르텔을 자국 사법체계 하에서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카르텔 우두머리가 수감 중에도 계속 조직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도관의 협조를 얻어 탈옥하는 일도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도 멕시코시티 교도소에서 카르텔 조직원 3명이 교도관 등과 결탁해 탈옥했다.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차포)도 연방 교도소를 두 차례나 탈출했다가 미국으로 인도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문

Pine Tree Construction 부엌 /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

전기/플러머/타일 25년 이상 풍부한 경험!!!

최고의 기술력 & 정직한 회사

주정부 면허회사
CA Lic #:1051205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